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②>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 낮은 편인가?

【우리나라 실업률 기준】

- 청년실업률이란 연령을 기준으로 실업률을 산정할 때 15~2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실업률을 말함. 즉, 15~29세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산출한 것임.
- 이는 ILO 기준인데, OECD 기준은 ‘15~24세의 연령층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으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실업률은 OECD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의 경우는 군복무가 의무화돼 있는 점을 고려해 청년실업 범위를 15~29세로 넓게 잡은 ILO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 실업률 현황】

- 2014년 현재 15~29세 연령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9.0%로 전체실업률 3.5%의 2.5배에 달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44.8%, 고용률은 40.7%로 15~64세를 대상으로 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7.6%) 전체 고용률(65.4%)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청년취업자 수는 2000년대에 접어든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전년보다 5만여 명이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인구 역시 13만 명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률은 오히려 8%에서 9%로 1%나 높아져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높은 대학진학률 등의 영향으로 고학력 노동력의 공급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기업의 인력 채용방식 또한 ‘경력직·수시’ 채용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학교 졸업과 더불어 일자리를 잡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그러면서 늘어나는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종의 저부가가치 일자리가 중심이어서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통계상의 지표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임.
- 15~24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OECD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0%로 미국(13.4%), 영국(16.3%) 보다는 낮고 OECD 평균(15%)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임. 그러나 제조업 강국인 독일(7.8%)과 일본(6.3%)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비경제활동인구가 포함되어 실업률보다 현실적인 지표로 간주되고 있는 고용률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47.6%), 영국(51.2%), 독일(46.1%), 일본(40.3%) 등이 40%가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25.8%로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이는 높은 대학진학률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원인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실업률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취업준비자나 구직단념자 등의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세계의 실업률 기준 동향】

- ILO는 지난해 10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업률 통계에 반영하도록 새로운 국제 기준을 정했고 우리나라 통계청은 2014년 1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 추가취업자 포함), **고용보조지표2**(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포함), **고용보조지표3**(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인원을 포함)을 발표하고 있음. 그러나 이 보조고용지표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여기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란 취업자 중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 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함.

- 2015년 1월 현재 고용보조지표3은 11.9%로 공식 실업률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우 2015년 1월 고용보조지표2와 고용보조지표3은 각각 20.4%, 21.8%로 공식실업률의 2배 수준을 보임. 고용보조지표에서

나타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나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는
실업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잠재 실업군으로서 이를 실질적인 실업으로 간
주할 경우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참고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매월 고용동향

통계청, 고용동향브리프, 2015년 2월호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청년실업률 분석결과